

안달루시아와 지리압

이춘우 (경상대학교)

아랍 안달루시아 음악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과 동아랍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연주되는 음악을 일컫는다. 이 음악은 옛 아랍 영토였던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생겨나 발전되다가 15세기 말 스페인의 영토 재정복으로 아랍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됨으로써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이주민들과 함께 북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동아랍 지역으로도 전수되어 여러 아랍국가들에서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이 고전 음악의 창시자로 여기는 음악인은 바로 지리압Ziryab이라는 사람이다. 지리압에 의해 창설된 음악은 천 년 이상 온갖 굴곡과 시련을 딛고 존속해 왔기에 역사적 정통성을 보증한다. 따라서 언어, 역사, 인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다양한 기원을 가진 마그레브 국가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이 음악을 문화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을 만하다. 본 연구는 고전 아랍 안달루시아 문화의 창설자로 여겨지는 지리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의 영웅으로 신성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신성화와 별개로 어떤 역사적 인물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성화가 마그레브 국가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연결되는 지점을 살펴볼 것이다.

안달루시아의 역사

안달루시아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히 중세 안달루시아 역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아랍의 스페인 점령은 서기 8세기 초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를 받던 이프리카의 총독인 무사 빈 누사이르의 명을 받은 사령관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침공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차례의 전투를 거쳐 714년에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 서고트족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이미 허약해져 있어서 아랍 무슬림군은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안달루시아라는 명칭은 이 당시 이슬람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알 안달루스Al-Andalus라고 지칭하던 데에서 유래한다. 이 명칭은 스페인을 침략했던 반달 Vandal족을 칭하는 Al-Andalish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코르도바, 그라나다, 세

비아 등 스페인 남부 도시들을 포괄하는 현재의 안달루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자치 지방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달루시아 지방은 알 안달루스의 영토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랍 지배의 전성기에 알 안달루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리압은 중세 알 안달루스 황금시대의 상징이자, 후우마이야 왕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후우마이야 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를 비롯해 중세 이슬람 세계의 역사를 잠시 훑어 볼 필요가 있다. 마이야 왕조는 661년에 무아위야 1세에 의해 다마스쿠스에서 창건되어 750년까지 아랍 제국을 다스린 첫 번째 이슬람 세습 왕조이다. 아바스 왕조에 의해 우마이야 왕조가 몰락했지만, 우마이야 왕족 출신인 아브드 알 라흐만 1세(756-788)가 이베리아 반도로 피신해 코르도바를 수도로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를 후우마이야 왕조라 한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코르도바 토후국Emirate of Córdoba 시기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룬 코르도바 칼리파Caliphate of Córdoba 시대로 나뉜다. 10세기 무렵 이슬람 세계에는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후우마이야 왕조, 카이로를 수도로 하는 파티마 왕조,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압바스 왕조가 공존했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나머지 두 왕조와 문화와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여 이베리아 반도에서 화려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다. 농업과 상공업도 발전했다. 이렇게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코르도바는 10-11세기에 서부 이슬람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영웅 지리압

아랍 안달루시아 음악은 9세기에 알 안달루스에서 지리압이라는 영웅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가 지리압의 생애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17세기 저자 아메드 모하메드 알 마카리(1578-1632)의 저술 『알 안달루스의 초록 가지들의 향기와 이 지역 고위 관리였던 리잔 우드 딘 이븐 울 카팁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보다 무려 800년 전에 생존했던 전설적인 인물 지리압에 대해 십여 페이지에 걸쳐 그의 특별한 삶을 전한다. 이 책에 의하면 지리압은 바그다드의 궁정 음악가 이샤크 알 모실리(767-850)에게서 노래와 작곡을 배웠다. 그러나 칼리프의 총애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스승은 자신의 제자를 위협하여 바그다드를 떠나게 만든다. 지리압은 822년에 코르도바에 도착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총애를 받으며 바그다드의 음악을 코르도바에 전한다. 그는 뛰어난 음악성으로 마슈리크 음악을 단순히 전하는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창설하게 된다. 그는 류트에 다섯 번째 현을 첨가하고, 음악 학교를 세우고, 음악 교수법을 새롭게 하는 등 여러 음악적 혁신을 이룬 가운데 마침내 누바라고 하는 새로운 악곡 형식을 창조해냈다. 그가 발명한 24개의 누바는 그의 사후 최고의 미학적 완성도에 이른다. 이것이 안달루시아 고전 음악의 토대가 된다. 그의 공로는 음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음식을 도입하고, 식사 예절을 가르쳤으며, 옷입는 법도 새롭게 도입했다. 말하자면 아랍 안달

루시아의 궁전의 모든 예법을 개선했다. 지리압이라는 천재가 일구어 놓은 문화 유산 덕분에 10세기에 코르도바는 이슬람 세계에서 바그다드나 카이로에 비견할 만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알 마카리의 지리압 전기는 그 보다 5세기나 먼저 살았던 11세기의 저술가 이븐 하얀(987-1076)의 책 『알 무크타비스』를 참고하여 저술했다. 그런데 이븐 하얀은 동시대에 널리 읽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담 지리압』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고 있다. 『키담 지리압』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고 이븐 하얀의 저서 『키담 무크타비스』에서 인용한 것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알 마카리가 이븐 하얀의 저술 중에서 지리압의 명성에 누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빼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만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이븐 하얀의 저서가 최근 발굴되어 출판되면서 알 마카리의 지리압 전기를 비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대조 연구를 통해서 초기의 텍스트들이 지리압에 대한 부정적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모두 소개하고 있는 데 반해 알 마카리의 저작은 지리압의 천재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사적 지리압

지리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페르시아의 언어학자 이븐 아비 타히르 타이푸르(819-893)의 『키담 바그다드』에 나온다. 압바스 왕조의 알 마문(재위 813-833)이라는 칼리프가 우마이야 왕조의 옛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산책하다가 알루야(850년 사망)라는 궁정 가수를 우연히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알루야가 지리압을 언급한다. 알루야는 자신은 멸망한 왕조 하에서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리압은 코르도바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책에 나오는 아부 하쉬샤의 전언에 의하면 지리압은 시리아를 여행하고 나서 마그레브로, 그리고 거기서 우마이야로 갔다고 한다. 이 책을 서술에 의하면 지리압의 존재는 마슈리크에 그의 생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리압은 바그다드를 떠나 다마스쿠스를 거쳐 곧장 이베리아 반도에 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다. 이븐 아부드 라비(860-940)가 쓴 『특별한 목걸이에 대한 책』은 이러한 사실을 전한다. 지리압은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아글라브 왕실의 지야다트 알라(재위 817-838) 왕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가 노래한 곡의 가사에 그의 신분의 콤플렉스를 자극할 내용이 있어 화가 난 왕이 그를 호되게 때린 후 자신의 왕국에서 내쫓았다고 한다. 지야다트 알라가 지리압을 추방한 것은, 그의 잔인하고 과학적인 성격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정권에 대한 저항의 기운이 싹트자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 아부드 라비의 지리압에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를 심하게 조롱하기까지 한다. 지리압을 ‘멍청하면서’ 동시에 환관의 엉덩이를 ‘뚫은’ 음탕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는 지리압이 대단한 음악가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영웅처럼 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저자의 저술은 몇 가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당시의 음악가

들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이거나 하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예외적인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븐 라비가 지리압 다음 세대의 저자라는 사실 또한 그의 서술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보증한다. 지리압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인물이 쓴 전기이므로 지리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술을 했을 것이기에 그가 지리압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후대의 저술에서 지리압에 대한 부정적 일화들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우마이야 왕조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찬양하고 싶은 후대 저술가들이 지리압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글라브 왕조에서의 모욕적인 추방이라는 사건도 추방이라는 모티브만 남고 사건 자체는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말하자면 아글라브 왕실에서의 모욕적인 추방은 바그다드에서 영광스러운 추방으로 변화되어 전승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리압 수용과 그 의미

지리압이 죽은 후 아랍 안달루시아 음악은 코르도바, 세비야, 그라나다 등 안달루시아의 주요 지방으로 퍼져나가 고유한 특징을 지닌 악파들로 번성했다. 이 찬란한 음악 유산은 1492년 스페인의 재정복으로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축출될 때 북아프리카로 흩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 코르도바의 음악은 알제리의 콘스탄틴, 세비야의 음악은 알제와 튀니지, 그리고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 그라나다의 음악은 모로코와 알제리의 틀렘센 지방으로 전승되었다고 여겨진다. 아랍인들은 기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전으로만 음악을 전했기에 누바는 상실되어 갔다. 지리압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두 학자가 17세기의 틀렘센의 역사학자 알 마카리의 저술을 소개하면서 지리압이 주목을 받는다. 가양고스의 『스페인 모하메단 왕조의 역사』의 번역 출간(1840), 도지의 『스페인 아랍인들의 역사와 문학 선집』 출판(1858)이 계기가 된다. 많은 학자들은 아랍 안달루시아 음악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 음악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 오늘날 마그레브 지방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11세기 이전에 시작된 안달루시아 음악이 동일한 음악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료는 부족하다. 독립 이후 본격화된 안달루시아 음악 연구들은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료의 부족과 안달루시아 음악의 구전적 특성으로 시대적 공극을 메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안달루시아 음악은 마그레브 국가들 뿐 아니라 이라크, 이집트, 예멘, 레바논, 시리아 등 동 아랍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 음악들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음악적 구성과 형식은 매우 다르다. 가사조차도 유사한 경우가 드물다. 이 음악의 연주자들이나 애호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음악이 옛 안달루시아의 음악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 음악의 창시자인 지리압의 후예임을 주장한다. 20세기 중반 독립한 북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은 근대적 국민국가 구성과 민족 정체성을 위해 안달루시아 음악을 공식 국가음

악으로 내세웠다. 지리압이 활동했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도 위대한 천재의 음악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 이슬람 문화의 업적을 자랑한다. 이집트에서도 동아랍의 양식과는 다른 안달루시아 음악이 주요한 레퍼토리로 정착했다. 지리압이 창시한 안달루시아 음악은 ‘고전’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과거의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안달루시아 음악 연주는 서유럽 음악인들에 의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주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했던 지리압 시대의 ‘콘비벤시아’를 떠올리게 한다. ‘콘비벤시아’는 종교적 공존과 문화적 관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스페인에 거주하는 북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압 신화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상징되는 옛 안달루시아에 대한 기억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Erlanger, Rodolphe, *Mélodies Tunisiennes*, Paris, Geuthner, 1937.
- Goody, Jack, *Entre l'oralité et l'écriture*, Paris, PUF, 1994.
- Guettat, Mahmoud, *La musique arabo-andalouse. L'empreinte du Maghreb*, Paris, El-Ouns, 2000.
- Guettat, Mahmoud, *Musique du monde arabo musulmane. Guide bibliographique et discographique. Approche analytique et critique*, Paris, 2004.
- Hachlaf, Ahmed et Elhabib, Mohamed, *Anthologie de la musique arabe (1906-1960)*, Paris, publisud, 1993.
- Hobsbawm, Eric et Ranger, Terence, *L'invention de la tradition*, Paris, éd. Amsterdam, 2006.
- Horizons Maghrébins. Musique d'Algérie : mémoire de la culture maghrébine, Algérie : histoire, société, théâtre, arts plastiques*,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n° 47, 2002.
- Jargy, Simon, *La musique arabe*, Paris, Que sais-je, PUF, 1971.
- Marouf, Nadir (sous la direction de), *Le chant Arabo-Andalou*, Paris, Harmattan, 1995.
- Poché, Christian et Lambert, Jean, *Musique du monde arabe et musulman, bibliographie et discographie*, Paris, Geuthner, 2000.
- Poché, Christian, *La musique arabo-andalouse*, cité de la musique, 1995.
- Reynolds, Dwight, "Ziryab in the Aghlabid Court.", In *The Aghlabids and their Neighbors: Art and Material Culture in 9th-century North Africa*, E. J. Brill Arts and Archaeology of the Islamic World series, 2017.
- Pouillon, Jean, *Fétiches sans fétichisme*, Paris, François Maspero, 1975.
- Reynolds, Dwight, "Al-Maqqari's Ziryâb: The Making of a Myth.", *Middle Eastern Literatures*, Vol. 11, no. 2, 2008.
- Rhais, Roland, *Une révolution mondiale. La musique arabo-andalouse*, Alger, Dar-El-Ijtihad, 1987.
- Romero, Ernesto, « Ziryab et la mémoire musulmane de la musique espagnole », in *Musique et mémoire*, paris 8, Harmattan.
- Shiloah, Amnon, *La musique dans le monde de l'islam*, Paris, Fayard, 2002.
- Stokes, Martin, « Musique, identité et 'ville-monde' », in *L'Homme 171-172*, 2004.
- Mohamed Kali, « Les parents de l'andalou ne sont ni l'andalousie ni Ziryab », *El Watan*, 22 mars 2004.